

■ 연구원 소식

○ 3차 역사문화기행 신청 안내(~11월 22일)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09시~18시

장 소 : 경남 거창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 남원 실상사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내 용 :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의 아픔, 그리고 해원

대 상 : 회원 및 시민 30명

참가비 : 20세 이상 1만원

2019년 3차 역사문화기행이 오는 11월 30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행은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 지역입니다. 서슬 퍼렇던 80년대 빨치산과 국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이 작품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문화기행에 참가하시기 전에 김원일 작가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먼저 만나고 오시길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답사 당일 요약본과 줄거리, 작품해설 등이 제공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11월 22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 3차 역사문화기행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11:30	전주대학교 -> 거창사건역사교육관 이동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06
11:30~13:00	교육관 관람 및 해설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실상사 이동 및 관람	
16:00~17:30	실상사 -> 전주대학교	

■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여섯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명 봉 교수께서 보름간 네팔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데땅”에서 “목디나트”로

5시가 조금 지나 잠에서 깼다. 데땅의 ‘솔트 본’ 롯지다. 데땅 또한 굴로 판 전통가옥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찰이 따로 있다. 아침 8시 출발이다. 오늘은 표고 900m를 올라갔다가, 300m를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일정이지만, 어제 1,100m를 올라갔다가 다시 그만큼 내려온 여파가 있지 않은가? 모두들 지친 걸음이라서 걱정이다.

뒷산으로 올랐다. 험준한 바위 지대를 통과하느라고 모두들 헉헉거린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맑은 계곡물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참으로 보기 드문 푸른 물살이다.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그래도 걸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40분 정도 지나자 파란 초지가 나타난다. 마을에서 부터 따라오던 목동이 이윽고 휘파람을 불자, 어디선가 염소 떼가 나타나 그의 뒤를 쫓는다.

전날의 강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쳤던 포터들이 뒹치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점심용으로 썬 찐 감자와 계란 그리고 빵 조각을 먼저 푼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험준하기만 하던 산세가 부드럽게 모양을 바꾼다. 정상 규-라가 바라다 보인다.



그러나 뻥히 바라다만 보일뿐 쉽게 다가오질 않는다. 허위허위 2시간동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날이 무척 무더웠다. 숨이 탁탁 막혔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못내 아쉬웠다.

그렇지만 길은 끝나기 마련이다. 마침내 해발 4,027m의 정상 규-라에 다다랐다. 한숨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었다. 넘겨다보니 목디나트 쪽으로는 부드러운 산세와 초지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알록달록한 도시가 내다보였다.

모양새로 미루어 무스탕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전진기지다운 생김새였다. 고갯마루에서 1시간을 넘게 아래쪽으로만 내딛다가, 해발 3,800m에 자리 잡은 찾집을 만났다. 밀크티 한잔을 시켰다. 밥 생각이 영 나질 않았다.

그래서 점심꺼리가 담겼던 비닐봉투를 아시시에게 통째로 넘겨준 대신 배낭 안에 지녔던 붉은 콩을 꺼내 나누어 먹었다.

다시 내리막으로 들어서자, 마을 입구에 길이 200m 가량의 출렁다리가 나타난다. 다리를 건너 언덕으로 올라 포장도로로 이어갔다. 도로의 좌우에 제법 번듯한 건물들이 늘어섰다. 역시 가장 큰 동네다. 인도·독일·벨기에 사람들을 번갈아 만났다. 특히 흥이 넘치는 인도 아주머니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먼저 제안한다. 노변 역시 제법 흥청거린다.

우리는 '베스트 스텝'이란 이름의 롯지에 들었다. 목이 몹시 땀다. 롯지에 들자마자, 식당으로 들어가 맥주 4병을 일행들과 나누어 마셨다. 언제 들어왔는가, 아시시가 전자 오르간 앞에 앉더니 연주를 시작한다. 몇 곡을 이어갔는데, 대부분 모르는 곡들이다.

그러나 「로망스」를 들어보니 수준급이다. 일행 가운데 한명이 그에게 팁을 주었다. 저녁은 야크 스테이크였다. 갈증이 그치지 않기애, 다시 맥주를 시켰다. 이제 종점이 멀지 않았다.



“묵디나트”에서 “죤숨”으로

아침 8시 15분이 지나 마지막 일정에 나섰다. 해발 3,760m의 묵디나트에서 2,720m의 죤숨으로 내려가는 포장도로다. 모두들 표정이 밝다. 그러나 운신은 쉽지 않으니, 포터들이 차례로 뒤처지기 시작한다. 20분쯤 걸어가자 자콧 마을이다. 오른쪽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열린다는 장터가 보인다. 장날이 아니라서 텅 비었다. 얼마 후 오른쪽 샛길로 마을을 통과한다. 작은 수로 하나가 졸졸 따라온다. 30분쯤 걸었을까? 길은 다시 포장도로를 만난다. 그리고 10시 15분에 까그베니로 가리키는 샛길로 내려간다.

까그베니. 우리의 걷기가 시작된 곳이다. 이제 우리는 칼리 건더키를 한 바퀴 제대로 돈 것이다. 남다른 감회가 일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옳으리라. 앞쪽으로 날기리 봉우리가 구름 속에서 숨바꼭질을 한다. 암벽지대를 따라 뚝뚝 내려가자, 아래쪽으로 찾길이 구불구불하다. 어느새 뽀얀 먼지를 휘날리는 비포장도로로 모양이 바뀌었다.

멀리 까그베니의 초입에 해당하는 애크로바티 지역의 ‘힐튼’ 롯지가 내다보인다. 기타를 맨 서양인 하나가 지나간다. 서너 마리의 말을 모는 마부 또한 지나간다. 발이 자꾸 무거워진다. 누런 먼지에 물든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무스탕의 전통주 ‘창’은 막걸리에 두세 배의 물을 탄 듯한 농도다. 맛은 시다. 마침 이곳 롯지에 창이 있다기에 한 병을 시켜 맛을 보았다. 설탕을 안주로 삼았는데, 이곳의 설탕은 입자가 굵고 구수한 맛이 돌았다. 정백당이 아닌 탕이다. 마침 살구 몇 알을 주기에, 씨앗을 빼낸 그 가운데에다 설탕을 채워 샌드위치처럼 먹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귀여운 일곱 살 소녀 나니와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점심 식사 후 롯지를 나오자, 왜 그리도 험난한 바람이 부는가? 우리들을 칼리 건더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인가? 이곳이 레테의 강이란 말인가? 모든 것을 차라리 다 잊고서 돌아가란 말인가? 모진 바람을 온 몸으로 막아내며 우리는 겨우겨우 죤숨으로 향했다. 우리들을 인간계로 이어줄 비행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카트만두에서 온 아시시와 포카라에선 온 머던을 제외한 다섯 포터들의 보금자리 역시 죤숨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3시가 조금 지나 공항 앞에 터를 잡은 롯지 ‘로-만탕’에 닿았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네 번째 이야기 “백왕전에 맺힌 한”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왕전 | 백제의 한이 깃든 백왕전은 다소 초라한 모습이다. 그러나 내재한 의의만큼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다.

계단에 오르면 세 동의 건물이 나타난다. 먼저 안쪽으로 왼편에 위치한 건물이 ‘백왕전百王殿’이다. 백왕전은 2007년에 이곳의 주지로 부임한 견진見眞스님의 법력으로 완성을 보았다. 최근에 지은 건물답게 현판 글씨가 오른쪽으로 읽도록 쓰였다. 그러나 그 옛날 백제왕들의 위패를 모신 의미 깊은 건물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서기 660년 6월에 신라의 5만 군사와 당의 10만 군사가 연합하여 백제를 총공격하였다. 7월 들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고,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의자왕은 13,0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의 수도 장안長安으로 붙잡혀 갔다. 의자왕은 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처형되어 북망산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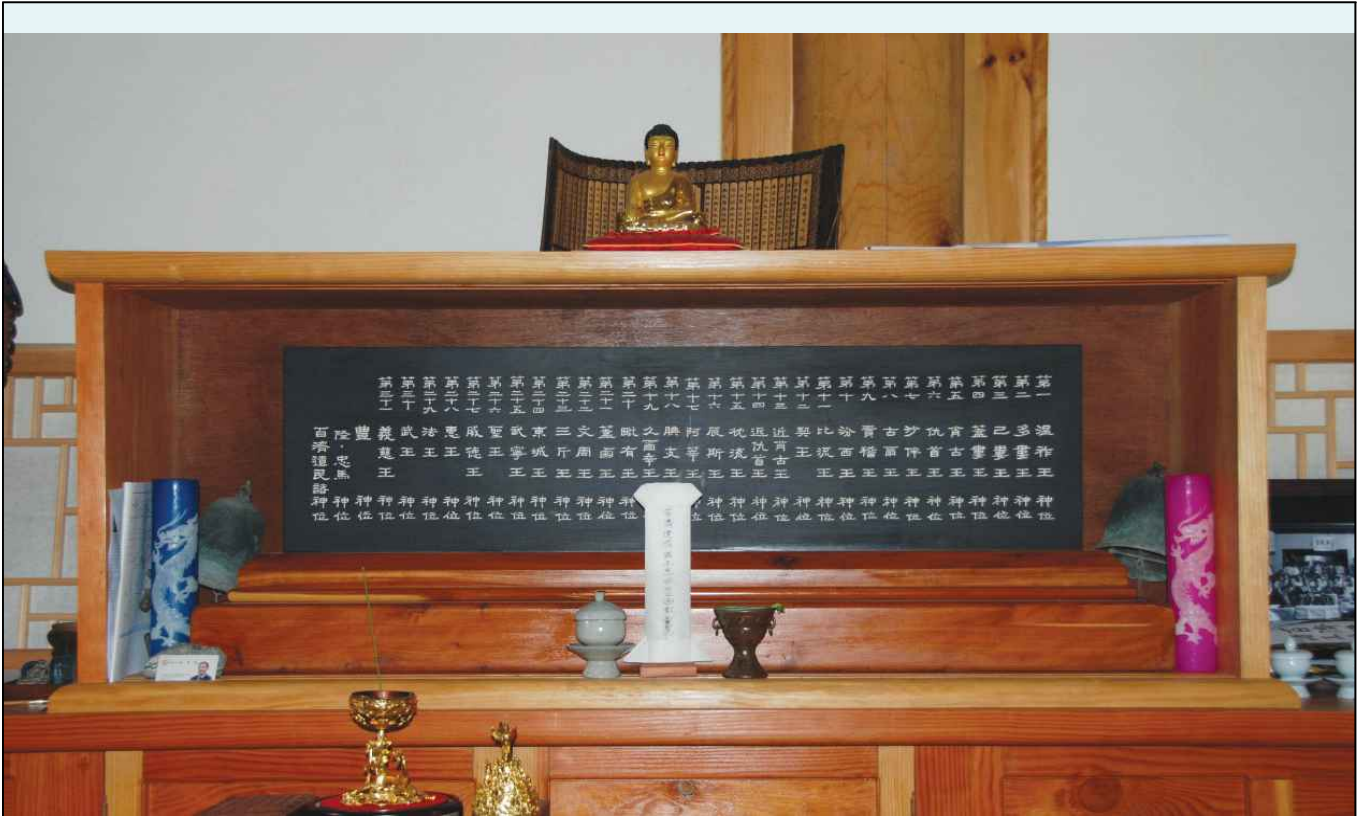
661년에 백제 부흥의 주축 세력이었던 복신과 도침은 당으로 잡혀간 태자 용을 대신해서, 그의 아우 풍豊을 새롭게 태자로 옹립하고 주류성에서 부흥군을 일으켰다. 이듬해 7월에 이들은 중과부적으로 크게 패하였지만, 부활을 향한 백제인들의 염원은 쉽게 시들 줄 몰랐다. 663년이 열리자마자, 백제의 유민들은 웅진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다시 싸움을 전개하였다.

3월에는 일본에서 원군이 도착했지만, 9월에 결국 백강白江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완패하고 말았다. 마지막 거점이었던 주류성이 함락되자, 태자 풍은 고구려로 망명했다.

용은 아버지 의자왕과 같이 장안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한 많은 일생을 접었다. 백제 부흥을 주도하던 흑치상지 역시 포로로 잡혀가 처형되었다. 지금도 서안의 북망산에 가면, 흑치상지의 무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자 태자였던 의자왕과 용의 무덤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늘 그렇듯이, 역사의 패자가 감수해야 할 비애가 아니던가?

백왕전에 들어가면 제단 위에 신위神位가 보이는데, 길쭉한 나무판에 명단이 죽 새겨져 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이루어진 합동위패는 백제의 한이 고스란히 담긴 초라한 모습이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 고왕암에서 최근 이렇게나마 마련하여, 그들을 기리며 원혼을 달래는 중이다. 이곳에는 늘 역사의 정적이 무겁게 감돈다. 찾는 이들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든다.

위패에는 먼저 백제를 건국한 제1대 온조왕溫祚王에서부터 제31대 의자왕까지 역대 왕들의 이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줄씩 뒤를 이었다. 그리고 왼쪽 말미쭝에 가서는 부흥군들에게 태자로 추대되었던 풍이 역시 한 줄을 차지했다. 형이었던 용보다 앞섰다.



백왕전 신위 | 하나로 모은 위패라서 생소하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깃든 깊은 한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태자 용의 이름 하단에 '충마忠馬'란 명칭이 나온다. 충마는 당시 용이 고왕암에서 나당연 합군에게 잡혀 끌려가자 슬피 울며 절벽으로 몸을 던졌다는 용의 애마를 가리킨다. 왼쪽 끝으로 '백제유민제신위百濟遺民諸神位'라는 마지막 줄이 나온다. 눈길이 이곳에 머물자, 웅한 가슴속에 시린 역사의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과 설움이 배인 바람이다.

목판으로 이루어진 신위 앞에 종이로 접은 위패가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모든 백제인의 어머니 소서노召西奴를 모신 위패다. 소서노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의 아내이자, 온조와 비류 두 왕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금동향로가 제단 앞에 따로 놓였다. 남달리 빼어났던 백제의 문화를 상징하는 금동향로다. 이제는 백제왕조의 마지막 유물인 양, 처연한 아름다움이다.

차마 눈길이 거뒀지지 않는 망국의 한이 서린 위패다. 이제는 역사의 뒤란에 이렇게 거울로 남았으니, 발걸음이 채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의 연해질 도리밖에 없다.



백왕전 마애불 | 백왕전에 깃든 한을 달래 주렴인가? 마침내 단단한 바위 표면을 열고 마애불이 존재를 드러냈다.

2007년부터 백왕전에서 '백제왕추모제'를 지낸다. 10월의 첫째 주말에 열리는데, 인적 드문 백왕전이 들썩거리는 날이다. 까마득한 시간을 건너온 미망未忘의 백제가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부활하는 하루다.

백왕전의 오른쪽 암벽에는 곱게 새긴 마애불이 우뚝하다. 새겨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탓에, 아직 어린 아기 속살처럼 눈부시게 뽀얗다. 제단 앞쪽의 화단에는 초롱꽃이 등을 내 걸었다.

마애불은 백왕전에 서린 백제 사람들의 한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은 그런 미소를 입가에 담았다. 따뜻한 햇볕에 마음이 편안하신 모양이다. 호박벌 두어 마리가 주변에서 뽁뽁거리며 난다.

암벽 위에는 둥치 굵은 소나무 한 그루가 마치 일산처럼 우뚝하다. 마애불을 위해 한 줌의 햇살이라도 더 가리고자 남쪽을 향해 기우뚱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긴 가지를 드리웠다. 멀리서 꺾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금빛 깃털만큼이나 황홀한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절집을 채운다. 바위 위의 부처님도 어느 곁에 살포시 졸린 표정이 되고, 소나무 가지도 축 처진다. 어느 곁에 바람마저 잠이 들었다. 심심해진 잠자리 두어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숲으로 날아간다.

다음 주는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다섯 번째 이야기 "원효굴과 용피굴"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